

70대 지체 장애인 광주고검서 피켓 시위 '눈길'

“욕설·폭행 불구 순천지청이 ‘혐의없음’ 처분” “불공정 수사라 생각해 증거물 새로 제출 항고”

최근 광주고검 앞에 70대 지체 장애인이 한손에 지팡이, 다른 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1시간여 동안 애처롭게 서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모습을 본 김모(76)씨는 “같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편을 든건 아니지만 오죽 억울했으면 순천에서 광주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에 안쓰러움을 느낀다”며 “법이 힘있는 사람들에게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피켓을 든 할머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가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고소를 했는데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충분한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증거물을 제시해 광주고검에 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순천시 조례동 H아파트 앞에

서 기아자동차 대리점 김모 대표를 상대로 한달여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했던 지체장애 3급인 김모(75) 할머니는 “교회에서 김 대표에게 발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었다. 무혐의 처분이 내리자 김씨는 “김대표가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허리 부분을 밝은 장면을 직접 봤다는 주변 사람의 진술과 영상물을 증거로 새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순천지청은 쓰러져 있는 몸을 발로 밝은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불공정한 수사라는 생각에 항고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씨는 지난 달 네차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 대표가 “에이, 사기꾼 X야”, “욕감하고 자빠졌네”라는 욕설을 해 인격적으로 무시당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힘 없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김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본 추모(61)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새끼야! 너같은~”하는 등 욕설을 하고,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허모 씨를 네차례나 찾아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협조를 안하면 경비원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노회 전권위원회 목사와 장로 임원들은 지난 9일 김 대표 등의 교회 내 행동에 많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을 순천·광양·구례 지역 목사와 장로 32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다. 전권위원회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며 “아랫사람인 내가 어떻게 할머니를 폭행할 수가 있겠냐. 만일 할머니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냥 두고 봤겠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할머니의 자식들 또한 저를 그냥 뒀겠냐”면서 “절대로 폭행한 사실이 없어 검찰이 무혐의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남 장흥 길목장(정찬섭 대표)과 와이푸드테크(여전화 대표)는 26일 장흥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요거트와 건강음료를 기탁했다. 정 대표 등이 기탁식을 한 뒤 손가락으로 사랑의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

추석 앞두고 전남도내 이웃사랑 기부 잇따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남도내에서 이웃사랑 실천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 길목장과 와이푸드테크 직원들은 이날 장흥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지역 경로당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요거트(200만원 상당)와 건강음료(1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 도암면에 사는 김희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도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0만원을 기부했다.

김씨는 하반기 자신에게 지급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금을 내놓았다.

담양지역신문협회는 지난 23일 취약계층을 위한 차매환자 실종예방용 위치 파악 GPS와 통신료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담양군에 쾌척했다.

장광호 담양지역신문협회장은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중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성금이 잘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제한 안돼”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관련법안 개정’ 의견 표명

중증장애인들이 만 65세 이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제도가 바뀌어 논란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장애인 종합조사표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대폭 줄게 되면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활동지원 연령제한을 폐지하라”며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지난 14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다는 것”이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전에는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4시간으로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이지거나 일상 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며 “최중증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현 제도에 의하면 만 65세가 되면)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돼 실질적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16년 10월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1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